

대행 스님

몰락 놔 버리되 그대로 여여하게 하라

꽉 차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앉으셨다 할지라도 우주 법계가 꽉 차서, 이 방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게 그 자리에 우리는 한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소에 가나 법당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딴 사찰에 가든지 딴 기독교에 가든지 간에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가짐가짐을 그대로 갖는 것을 원했고 또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그런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부처님 불상을 불신하거나 또는 모른다는 사람을 불신한다거나 아는 사람을 높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런 가짐가짐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누구나가 불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생활이나 또는 이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할 것은 누구한테나 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력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나 여러 부처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아마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몰락 다 놔 버려라." 하는 데서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다 몰락 놔 버리라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홀랑 놔 버리라는데, 놔 버리면 허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안팎이 기울지 않게 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그게 정상으로서의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법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락 놔 버리란다고 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몰락 놔 버려라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러는가. 누구나가 내공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법계가 다 공해서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다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생각 이 생각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몰락 놔 버려라' 하는 거하고도 아마 거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놔 버리되 그대로 여여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올라가서 부처님을 끊어 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변소간에 가든 어딜 가든 부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탑돌이를 하고 들어온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탑돌이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 탑이 성스럽고 부처님의 자리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들이 저렇게 그 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탑돌이를 하고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내 진정한 마음, 그 수많은 우주간 법계에 위로는 삼세의 부처님들이나 역대 조사들, 선지식들,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친 그 내공의 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을 돌아도 다 끝이 없는 돎이 바로 탑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탑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그 탑이 있는 데 거기 부처님이 계신데….' 요러는 고정된 관념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유의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그 향과 밝음이 이 대천세계에 다 비추었으니…. 그러나 우리 내공에 있는 그 마음이, 그 밝음이 없다면 그 밝은 빛을 서로서로가 상응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해서, 또 내 마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린다 할 때 예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의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내공이 없다면 바로 송장이 될 것이고 분별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또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이 삼합이 바로 삼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종합돼서 한데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자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 내공에 모든 걸 예배 올린다 하는 건데, 어디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내공의 부처님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원에, 어느 도량에 갔다 하면 벌써 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해서 혼자 먹는 거 보셨습니까?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혼자 사는 거 보셨습니까? 모두 여러분은 불성도 똑같고 같이 움죽거리고 같이 해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자기 개별적인 그 능력이 아니라…. 먹을 때는 각각 먹지만 하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릴 때에, 예라는 것은 항상 위의 부처님의 마음이 내 내공의 마음이니 내 내공과 그 부처님의 내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에다가 예배를 올리는 거죠. 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바로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숙연하게 항상 고갤 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기 혼자만이 무엇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또 우리가 자기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 지금 육신과 더불어 망가지는 법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혼자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9년을 설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웠건만 '나는 그렇게 불태운 사이도 없고 말한 사이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잘 생각을 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 참, 처음 발견하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세울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예배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도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올리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과 부처님의 주인공,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빛이 온 누리를 비춰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믿고 어떡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공의 그 주인공 자체가 바로 전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올릴 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왜 그렇게 높고 광대무변하냐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보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더 행을 잘하시고, 더 말도 잘하시고, 더 우주 법계를 싸고 뒤집었다 젖혔다, 뒤집었다 젖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여러분 내공의 그 마음 자체와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삼배를 올리는데, 예전 같으면 삼배를 올리고 난 뒤에 뒷걸음을 일곱 번을 치고서 다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나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윗자리에다가 예를 올리고, 배(拜)라는 것은 내 육신과 마음, 사량적인 이 마음과 육신이 거기 그저 '예배 올립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뿐만 아니라 위로 삼세 부처님들, 조사들, 선지식들한테 예배를 올리고 아래로는 자기를 자기가 굴복을 시키는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락 놔 버리라고 한 것은, 놔 버리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는 내 내공의 불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생활에 조금도 어김없이 나갈 수 있게끔 그 바란스를 맞춰 주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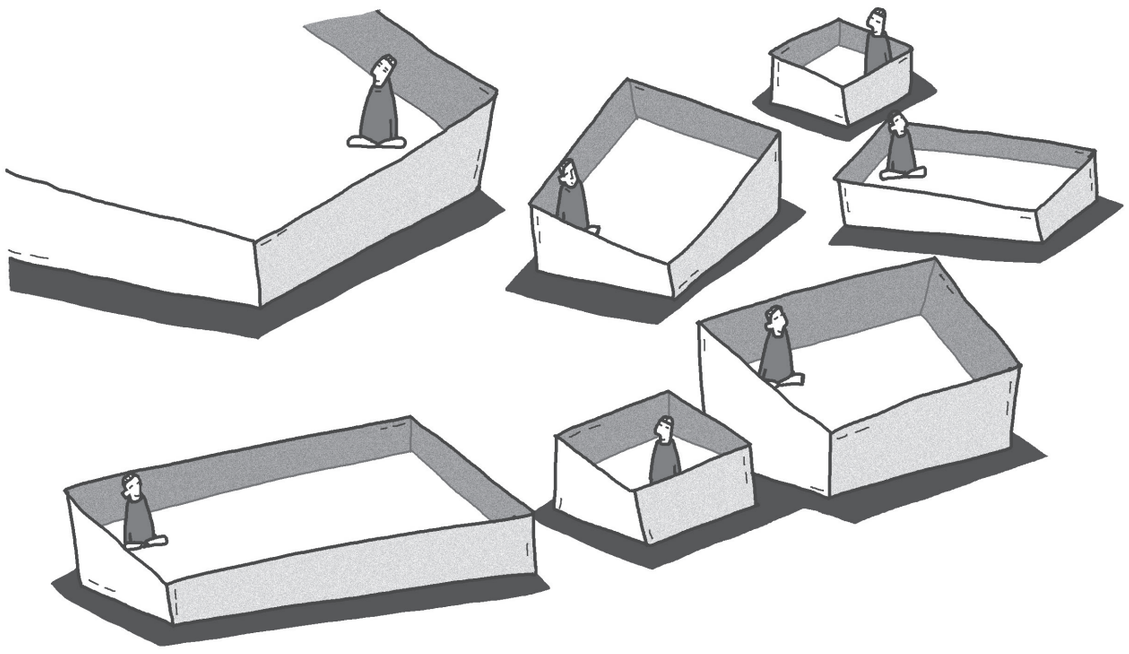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